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아이들: 코로나19 시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

유 설 희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 세 영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살고 있는 만14~18세 사이의 여자 청소년 11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활용한 개별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담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시설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을 살펴보고자 이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미시분석을 통해 119개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41개의 하위 범주와 13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도출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과 진로 및 자립 준비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부 시설 청소년은 시설생활에 안주하여 진로와 자립 준비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은 이른 시기에 자립을 맞이하여 빠르게 진로 결정과 자립을 준비하는 과업이 있었으나 여느 또래들처럼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 연구는 가정 외 보호체계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와 자립 준비 교육과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진로, 자립

* 이 논문은 유설희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2)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evenhow@ewh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과 청소년은 가정에서 부모의 애정과 돌봄을 받으며 저마다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고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최근에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변형되거나 확장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인 가정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안식처로 작용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안 양육체계에서 성장하게 된다. 이들을 보호하는 대안 양육체계는 가정 형태가 아닌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 보호와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한 가정보호가 있다.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가정 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기조(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보호대상 아동들의 대부분은 가정 형태가 아닌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 중심의 대안 양육체계에 머무르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 중에 아동양육 시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63.5%(2,183명)로,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의 가정보호 36.5%(1,254명)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보건복지부, 2022). 2020년 현재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는 11,356명으로 보고되어(보건복지부, 2021) 아직까지도 많은 아동들이 가정 밖 형태의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보살피고 가르쳐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아동양육 시설에서도 보호대상아동을 만18세가 될 때까지 양육과 보호를 하고, 성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과 취업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과 시설 환경 간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자립의 시점과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사회로 내보내는 시기를 가정 내부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문화, 당사자의 준비 정도 혹은 가족구성원 간 합의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정하고 있으며, 자립을 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 특정한 연령대를 갖대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이러한 보살핌과 지원이 가능한 시기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¹⁾하고는 있으나 시설 청소년은 선택의 여지없이 어느 또래들보다 빠르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도록 이끌려진다.

우리 사회에서 때이른 자립을 강요당하는 시설 청소년들은 부모가 존재하더라도 부모의 학대나 이혼, 빈곤 및 실직 등의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는 경험을 하였기에 퇴소한 이후에

1) 2021년 12월 21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연장 사유 없이 보호가 종료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5세까지 연장하였음(보건복지부, 2022. 6. 14.)

도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을 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생존 비율은 52.0%였지만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는 2~3개월에 한 번 이하가 20.4%였으며,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9.2%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즉, 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퇴소 이후에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면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돌봄 또는 경제적·정서적인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이들에게는 기약할 수 없는 희망 고문이자 환상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퇴소하기 전까지 진로를 결정하고 독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과정을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퇴소 이후 녹록치 않은 현실도 혼자서 맞닥뜨려야 한다. 예컨대, 시설 등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은 일반 청년보다 고용률이 낮았지만 실업률(보호종료 아동 16.3%, 일반 청년 8.9%)과 비정규직(보호종료 아동 36.4%, 일반 청년 29.6%)은 높은 상태였고, 대학에 진학하였어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습 부담 등으로 휴학이나 중퇴를 경험한 비율이 13.3%에 달하였다(이상정, 김지민, 안은미, 김무현, 2021). 이렇게 시설 청소년이 퇴소 이후 급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불안정한 현실은 자신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막막함과 세상에 혼자라는 외로움에 휩싸이게 했고(박신애, 최옥채, 2018), 서툰 사회생활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만들기도 했다(정혜옥, 손병덕, 2018). 또한, 이들은 시설에서 퇴소한 지 10년이 훌

쩍 지나 성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원망과 더불어 그리움도 공존하였으며,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낯선 시설에서 보내면서 가정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에 현재 자신이 꾸린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황수연, 2018). 이러한 연구결과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도 불안정한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들이 시설 안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그에 따른 진로를 탐색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과정 자체가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이해할 수 있다.

시설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이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주로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시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나 리더십 역량 등의 개인 내적인 요인(김형태, 이수천, 2019; 문은숙, 2010; 송연주, 2018)과 불안이나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박찬웅, 김현주, 2018; 조민좌, 전효정, 2012), 부모나 친구나 후원자 등의 지지체계(강현아, 이종은, 2018; 박은미, 장신재, 2009)가 이들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시설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진로 탐색 및 취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립 준비 실태 정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김예성, 이경상, 2015; 이경상, 2011). 이러한 양적 연구들은 시설 청소년의 진로 문제나 발달, 자립 준비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과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개개인이 경험하

는 진로에 대한 진솔한 고민이나 동기,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어려움, 지지체계 등을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진로와 관련하여 일반 청소년과 달리 시설 청소년이 어떤 특수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제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과 관련된 경험의 특성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자립에 대해 고민을 한 청소년의 생생한 경험을 전해 들음으로써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시설 청소년들의 진로와 자립 이슈를 살펴보는 질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자립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한 연구는 드문 편이었으나 이미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 생활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고식 보고를 통해 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경험했던 진로 문제나 진로 결정 과정, 자립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연구참여자는 진로를 선택할 때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주어진 상황에 따르거나 학교 담임 교사, 시설 직원 등 주변인의 영향을 받아 전공과 진학을 선택하였으며(장정은, 전종설, 2018), 진학보다는 취업에 초점을 맞춘 진로상담과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양은별, 김지혜, 정익중, 이정희, 2017; 최경옥, 김수정, 2018). 또한, 반강제적으로 참여했던 자립 준비 체험이나 프로그램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도 하였지만(유영림, 양영미, 박미선, 2015), 시설

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다(강현아, 이종은, 2018; 이화명, 김영미, 2015).

이러한 연구들은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삶과 자립에 대해 전반적인 어려움과 적응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어, 과거에 시설에서 생활해본 경험에서 파생된 진로나 자립과 관련된 이슈들이 퇴소 이후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참여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반추하는 형식인 회고식으로 보고되었고, 퇴소 이후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함께 반영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현 시점에서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진로와 자립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양육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현재의 정서적인 반응들을 포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탐색하고 형성하는 시기이며(Erikson, 1968), 자신에 대한 이해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과 연결되므로 현재 양육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의 진로와 자립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하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을 더욱 고립시켰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초기에 정부에서는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소자와 가족들의 면회와 외박,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였고, 집단 행사와 교육 등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시설 청소년들은 시설 외부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진로와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참여와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기에 코로나19와 같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신체 및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삶의 질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최지옥, 2021)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모든 것에 제약이 따르는 현실에서 진로와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설 청소년들이 현실점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시기에 가족과 분리되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14세에서 만18세 사이인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생활세계에 들어가 봄으로써 참여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개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한다(전가일, 2021). 이미 진로에 대해 열렬히 고민했던 청소년기를 거쳐 나름대로 삶을 꾸려나가는 성인기를 보내고 있는 한 개인이자 시설 청소년의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자로서 현재 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진로와 자립에 대해 어떠한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롯이 들여다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의 미시분석(micro-analysis)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시설에서 보호되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14~18세 사이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을 이해하고자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통해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14세~18세 사이의 청소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을 만14~18세 사이로 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본격적인 자립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립계획서를 작성하

도록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 준비나 자립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숙고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학교 3학년의 연령대인 만14세부터 연구참여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곧 맞이하게 될 자립 생활을 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나 탐색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만14~18세 사이의 청소년을 이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에 따라 표본크기를 설정하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질적연구에서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가 최종 연구참여자수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 즉, 질적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더 이상 새로운 개념, 범주, 관련성에 대한 정도가 도출되지 않을 때, 분석과 표집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Glaser & Strauss, 2011).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 간 개별면담을 마친 후, 바로 분석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현상과 개념, 범주를 비교함으로써 포화 상태를 판단한 결과, 이 연구의 참여자 수는 최종적으로 11명이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의 모집은 연구자가 과거에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2곳의 아동양육시설 기관장이나 실무담당자 등과 접촉하면서 시작되었다. 먼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이나 실무담당자들에게 사전에 메일이나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한 후, 해당 기관의 청소년들에게 이 연구에 대해 알려주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시설장이나 실무담당자 등의 동의가 완료된 후에는 이 연구에 대한 목적 및 내용, 비밀보장, 보상 등의 설명이 포함된 모집 공고문을 전달하여 해당 시설 내 청소년들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 14~18세 청소년이 모집 공고문에 기재된 연구자의 연락처를 통해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거나 연구자와 사전에 연락을 취했던 실무담당자에게 간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사를 전달받는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연구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추천과 연계를 통해 같은 시설에 있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눈덩이 표집을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 연구참여자의 모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가 시작되어 확산세가 심각했던 시기로,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시설 내부인의 출입도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기존에 인연이 있었던 아동양육시설 외에 서울 및 대전 지역의 여러 아동양육시설에 메일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자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 접촉이 어렵다’ 또는 ‘시설에 사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려한다’ 등의 사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A시설과 B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A시설과 B시설 모두 여자 아동과 청소년이 생활하

는 시설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만14~18세 사이의 미성년 자이므로, 연구참여자 청소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므로 이들 중 대부분은 부모가 모두 안 계시거나 가정 문제로 인해 부모나 친인척 등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분리된 경우, 부모가 감옥에 수감된 경우 등으로 인해 부모와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를 위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가 오히려 연구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복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나 부득이하게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과 협의 후 차선책으로 시설(기관)장 또는 담당자 등의 동의를 획득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11명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2.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를 승인받은 후에 진행되었다.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면담을 진행하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에 대해 실제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자

표 1. 연구참여자의 현황과 특성

이름 ¹	학년(연령) ²	원하는 진로	면담 횟수 ³	입소시기	전원경험
김진주	고2(만16세)	사회복지사	5회	1세	무
오은아	고2(만16세)	네일아티스트(창업)	4회	7세	무
최하나	고1(만15세)	사회복지사	3회	초1	무
유연수	고2(만16세)	회사원(금융권 사무직)	3회(1회)	6세	유
한미소	중3(만14세)	회사원	3회(1회)	7세	무
신연두	중3(만14세)	애니메이션 작가	3회	중2	유
민선우	고1(만15세)	태권도 품새선수	3회(1회)	중3	유
이현주	고3(만17세)	회사원(비서직)	4회(2회)	3세	무
박진미	고2(만16세)	파티쉐(창업)	3회(1회)	초2	무
정운서	중3(만14세)	회사원(회계분야 사무직),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3회(1회)	5세	무
문소이	고2(만16세)	회사원(금융권 또는 공기업 사무직)	3회(1회)	7세	유

주. 1.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 가명으로 제시함. 2. 학년 및 연령 표기는 인터뷰가 주로 이루어졌던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함. 3. 면담 횟수의 괄호 안은 비대면 면담 횟수임.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연구참여자와 연구자는 일대일로 만나 사전에 연구자가 관심이 반영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표 2 참조). 면담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 사이에 개별적으로 3회에서 5회 정도씩, 1회기 당 약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걸쳐 수행하였다. 주로 2020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개별면담이 이루어졌는데, 면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한 경우, 연구참여자인 청소년에게 동의와 양해를 구하여 2021년 5월까지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실제 면담이 진행되었던 2020년 2월 초반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 연구참여자와 면담 일정을 정

하고 만나는 과정에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1~3차 유행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외출이 금지되고 외부인 연구자가 시설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시설 내부에서 부담감과 안전의 문제도 제기되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면담 일정이 길어졌다. 개인별 면담 간격은 1회기 당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시설 내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2~3달 정도 간격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모든 대면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체온을 확인하였고, 면담이 진행되는 중에는 마스크를 쓴 후 일정 간격의 거리를 두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방역수칙을 최대한

표 2. 개별면담 질문 예시

구분	질문 예시
진로 준비 관련	-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나요? 진학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학교와 학과에 가고 싶나요? -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 내가 원하는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나요? 또한, 현재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나요? -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나요? - 진로와 관련하여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그러한 도움은 만족스러운가요? - 현재 진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 행복한가요?
자립 준비 관련	- 시설에서 언제 퇴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는 어떻게 지낼 계획인가요? - 시설에서 퇴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자립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진로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개별면담 일정 및 장소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함께 정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참여자의 외출이 제한되면서 면담 장소는 시설 내부에 있는 상담실이나 회의실로 한정되었다. 또한, 추가로 진행되는 면담에 한하여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화상회의 플랫폼이나 영상 및 음성 통화 등)으로 비대면 면담도 병행하였다. 개별면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두 대의 녹음기를 통해 녹음한 후, 이후 연구자가 녹취록으로 옮겼다.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진술과 감정을 담고, 면담 당시의 현장감을 기록하기 위해 면담을 마친 후, 5~7일 사이에 연구자가 전사를 하였다.

개별면담은 연구자가 연구 준비 단계에서 마련한 진로와 자립과 관련된 질문이 담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연구참여자의 진로 준비과정이나 자립을 모색해가는 경험과 관련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관심이 반영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점적으로 탐색하기보다는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묻거나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최대한 연구참여자가 그에 대해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가족과 분리되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14~18세 사이의 청

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행위와 경험, 과정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Strauss와 Corbin (1998)이 제안한 미시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미시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줄단위 분석을 통해 속성과 차원을 지닌 범주를 생성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으로, 연구 초기 단계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자료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특정 부분에서 더 파헤칠 것이 있을 때, 새로운 범주가 나타났다고 느껴질 때 진행하면 된다 (Strauss & Corbin, 1998),

이를 위해 먼저 개별면담 내용을 연구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녹음된 면담 자료 전체를 전사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었다. 연구참여자와 개별면담과 녹취록 작성이 끝난 이후 연구자는 면접에서 얻은 면담자료를 줄단위로 분석하였고, 분석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주요한 개념들을 명명하면서 메모를 했다. 또한, 개별면담 자료를 수집하고 동시에 줄단위 분석을 실시한 후, 다시 연구참여자들을 만나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반복적인 비교(constatant comparison)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개념과 범주를 형성하고 다른 개념과 범주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 개념과 범주가 다른 개념과 범주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권리와 안전과 권리, 복지를 보호하고자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사전승인(ewha-201910-0020-01)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간 첫 만남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문서로 제공한 다음에 각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개별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참여자는 가족관계나 입소 배경 등 개인적인 사항들을 연구자에게 노출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참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구참여자의 개인 사항에 대한 질문 및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면담 중에 개인 사항들을 노출하더라도 연구자는 해당 내용들을 익명 처리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수집된 자료가 연구를 위한 분석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알렸다.

또한, 이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개별면담을 통해 진로와 자립 과정에 대한 주제를 위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연구참여자는 자연스럽게 연구자에게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막연하게 품고 있었던 고민들과 걱정거리들을 되뇌어보고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스스로 진로와 자립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현재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 소질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진로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도 다시금 점검해보는 성찰을 해보기도 하였다. 연구자와의 개별면담이 진행될수록 연구참여자는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기도 했고, 자신이 목표로 했던 바를 이뤄내는 등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5.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질적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과 관련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들과 논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양적연구에서 논의되는 개념과 용어와는 차이가 있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Creswell(2015)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기술한 결과들의 정확성 정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질적연구의 타당성으로 봄으로써 연구자가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만들게 된 연구물과 상세하고 풍부한 기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에 형성된 친밀감 등이 연구의 가치나 정확성을 더한다고 하였다. 한편,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절차와 연구결과를 동일하게 재현할 수 없다는 특이성이 있으므로, Merriam(2009)은 질적연구의 신뢰성은 똑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의 문제보다는 수집된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밝혀낼 수 있는지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적연구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는 첫째, 다수의 자료와 방법, 조사자, 이론 등을 활용한 삼각검증법, 둘째, 연구자의 견해 밝히기, 셋째, 감

사추적 기법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 확인법과 동료 검토법, 연구자의 주관성을 알리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 연구자의 해석과 의미를 부여한 것이 연구참여자가 개별 면담을 통해 응답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자 이 연구의 참여자에게 개별면담을 분석한 내용이 담긴 연구결과 초고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개별면담을 통해 밝혀진 연구참여자의 견해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해석되었는지, 연구자의 표현이나 기술이 정확하고 정당한지, 혹시 연구참여자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질적연구를 수행해본 경험이 많은 질적 연구 전문가 1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자는 대학생 시절에 아동·청소년 치료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양육시설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에서 심리학과 아동학을 공부하며 박사 과정까지 마친 연구자는 청소년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연구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나 학술 논문, 보도자료,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대안양육 체계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현황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9년에 한 연예기획사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었다. 이들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연구자는 시설 청소년의 삶을 다룬 문서나 영상 자료로 마주하던 것을 넘어서서 이들의 삶을 직접 조명해보고 싶은 바람이 생겼다.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시설에서 보낸 아이들이 10대 후반기를 보내면서 곧 맞이하게 될 자립에 대해 어떤 생각과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진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싶었다.

또한, 연구자로서 시설 청소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생각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연구자는 시설 청소년들의 경우 보호체계로부터 종료 시점이 예정되어 있기에 자신의 진로와 자립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민과 걱정, 불안 등도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특히, 일반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20대가 되어도 부모의 경제적·정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진로와 자립을 천천히 준비해나갈 수 있으나 시설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만한 가능성이 낮을 거라는 생각에 시설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들이 진로와 자립 준비를 하는 것에 절실함이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과거 경험과 선이해, 그리고 연구참여자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이들의 진로와 자립 과정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시설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과 다른 진로와 자립 준비를 할 것이라는 가정은 시설 청소년들과 먼

담을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결과 및 해석

1.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에 대한 자료의 범주화

이 연구에서 구성한 연구참여자의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의 경험에 대한 개념과 범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여러 번 읽고 원자료를 문장 및 문단 단위로 분석한 이후, 줄

단위 분석을 하면서 주요한 개념들을 발견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의미있고 대표성있는 범주로 묶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총 119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합하여 41개의 하위 범주와 13개의 범주가 분류되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에 대한 자료를 범주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미 예정된 자립에 밀려오는 걱정들

‘이미 예정된 자립에 밀려오는 걱정들’은 연구참여자들이 또래들보다 이른 시기에 진로

표 3. 자료에서 도출된 범주와 하위범주

범주	하위범주
이미 예정된 자립에 밀려오는 걱정들	• 세상으로 내딛는 발걸음의 두려움 • 불확실한 현실에 쌓여가는 불안감 • 부족한 자립 경험에 대한 부담감
의지할 수 없는 원가족	• 기대할 수 없는 가족의 역할 • 지원없는 가족의 요구
제한된 시설의 역할	• “언을 게 없는” 정보와 지원 • 공간과 도구의 제약 • 존중되지 않는 개별성과 자율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음	• 고립된 일상에 지연된 과업 • 코로나에 좁아진 취업문 • 코로나로 잃어버린 기회
때 이른 자립에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	• 영원할 것만 같은 안전한 시설 생활 • 막연한 낙관을 그리는 미래 •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삶 • “귀찮아서” 미뤄두는 과업들 • 아직은 홀로 서고 싶지 않은 마음
뚜렷한 진로 목표와 자립 계획	• 명확한 진로 목표 • 구체적인 자립 계획

표 3. 자료에서 도출된 범주와 하위범주

(계속)

범주	하위범주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존재	• 닳고 싶은 사람들의 삶 • 반면교사로 삼는 퇴소한 언니들의 삶 • 멀리서나마 응원해주는 가족 • 원가족보다 끈끈한 시설의 인연들 • 믿고 의지하는 존재의 부재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에서 의미 발견하기	• 좋은 경험으로 여기기 • 진로 준비과정 자체를 즐기
진로와 자립을 위한 준비에 몰두하기	• 학교의 자원 활용하기 • 시설의 자원 활용하기 • 스스로 진학과 취업에 대한 정보 찾아보기 • 스펙 쌓기 • 무엇이든 일단 해보기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기	• 어려워 보이는 것은 금방 포기함 •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함 • 혼자 하는 것을 두려워 함 • 현실의 벽에 원했던 진로를 포기함
분위기에 따라 휘말리기	• 매일 노는 분위기에 젖어듦 • 주변인에 따라 진로가 휩쓸림
성취의 경험	• 목표에 점차 가까워짐 • 노력 끝에 얻은 성과를 즐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	• 아직도 계속되는 고단한 여정 • 연이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 • 자신이 원했던 길에 대한 의구심

주. 분량의 문제로 하위범주별 개념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와 자립을 결정해야 하는 현실에 두려움과 불안함, 혼란스러움, 부담감 등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자립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였고, 자립을 하게 되면 의지할 수 있는 보호망이 없어진다는 것에 불안해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진로에 미래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으며, 이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자립을 준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은 일상에서의 자립 경험이 부족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보고하였다.

연구자: 연수는 어쨌든 혼자 자취하고 싶은데
긴 하지만,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어때요?

유연수: 왜, 그 뭐지? 드라마나 실제 상황
같은 거 보면은 혼자 사는 여자네 집
에서 막 (웃음) 험한 일이 다 일어나고.
(웃음) 괜히 혼자 있으면 바람에 흔들
리는 창문도 괜히 막 무섭고. 막 있잖
아요, 그런 거. (웃음)

연구자: 그러게. 혼자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은 게 좀 무서워요?

유연수: 네. 그리고 혼자 살면은 저를 보
호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좀
그렇긴 해요.

<2021년 4월 29일, 연수와 의 세 번째
면담>

민선우: 아무래도 돈.. 자꾸 돈을 등장하
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립이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고 생활비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한 달에 전기세는 보편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수도세랑 뭐, 전기세.. 이런
것도.. 저희는 그런 걸 들을 그런 게
없잖아요. 기회가 없다보니까 그런 게
제일 알고 싶어요. 막 그런.. 안 좋은
생활을 하면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 대처법이라던가 그거랑 관련된
법 같은 것도 궁금하고.. 그런 걸 하면
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라던
가 이런 것도 알고 싶고.. 그런데.. 알
길이 없어요.

<2020년 7월 31일, 선우와의 두 번째

면담>

의지할 수 없는 원가족

‘의지할 수 없는 원가족’은 연구참여자들이
원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
으로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거나 원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함께 살지 않는 부
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연구참여자들
의 진로나 자립 준비와 계획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이나 정서적인 지지, 정보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 관
계를 유지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진로나
자립 준비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족의 도
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진학이나 진로를 준
비를 할 때 가족으로부터 조언이나 정보를 얻
기보다는 스스로 탐색해본 후 가족에게 결정
한 것들을 통보하는 식으로 전달한다고 얘기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가 원치 않는 진학이
나 진로를 강요하는 가족도 있었다. 이에 대
해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으로서 돌봄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진학과 취업 문제
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간섭’이나 ‘잔소리’로
여기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연구자: 소이는 어쨌든 고등학교 갈 때도
그렇고 지금 은행, 증권 쪽 가고 싶다
고 했잖아요. 이런 데 가고 싶다고 할
때 부모님이랑 상의하거나 이런 적 있
어요?

문소아: 아.. 약간.. 고등학교 갈 때도 부
모님이 인문계를 가라고 엄청 그랬거
든요? 근데 저는 싫어가지고 그냥 싫

고. 싫다, 싫다한 다음에 제 마음대로 넣었어요. 그 학교를. 그리고 요즘에도 대학교 가야 성공한다, 계속 이러는데. 근데, 뭐지? 대학교 간다고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웃음)

<2020년 6월 19일, 소이와의 첫 번째 면담>

제한된 시설의 역할

‘제한된 시설의 역할’은 시설생활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로나 자립 교육과 프로그램이 유용하지 못한 점을 보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진로나 취업과 관련해서 시설 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구할만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사실 시설 내에 아이들의 자립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긴 하지만 웬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직접적인 정보나 조언을 구하기는 어려운 듯 보였다. 또한, 공동생활을 하면서 개별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공간과 도구를 활용하는 것에도 제약이 따른다고 얘기하였다.

연구자: 우리 집(시설)에서는 진로 교육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진로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문소이: 전에는 약간.. 있었는데 다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연구자: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문소이: 뭔가 자기가 흥미 있는 일을 찾

아서 그걸 해라. 그냥 다 똑같은 얘기.

연구자: 결론이 그렇게..

문소이: 네. 그렇고. 누구나 학교에서 맨날 강의로 듣는 그런 얘기하고... 또 쌤들이 오면은, 보통 막 약간 강사님들 오면은 자기 꿈 찾아서 좀 성공하신 분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건 너무 뭔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긴 이렇게, 이렇게 했다. 뭐 어찌라는.. 다 그 사람 같지 않은데.. 환경이 다 다르고.. 다른데 약간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2020년 7월 24일, 소이와의 두 번째 면담>

민선우: 아무래도..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는 게 좀 불편해요. 방을 따로 쓴다고 해도 따로 쓰지만 따로 쓰지 않는 기분이랄까요. 문이 잠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미닫이고 방음이 아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들이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없는 거 정도? 그게 불편해요.

<2020년 7월 31일, 선우와의 두 번째 면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음’은 사회적 재난과도 같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와 자립 준비를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코로나19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 사회적 재난과도 같았던 코로나19는 공적인 돌봄 체계에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안전과 보호라는 명목 하에 대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욱 통제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외부로의 외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방끼리 오가는 것과 아이들 간에 접촉도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만 학교에 갈 수 있었고, 그 외 학원이나 문화활동과 더불어 가족과의 만남도 금지되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와 자립과 관련된 교육과 프로그램도 줄줄이 취소되자 퇴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생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와 자립 준비에도 비상이 생겼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자 취업 시장도 얼어붙어 특성화고에 다니는 연구참여자들은 취업 대신에 대학 진학을 해야 할지 고민하였으며, 자신이 열심히 스펙을 쌓더라도 고용 시장이 좋지 않아 취업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도 했다. 모두가 예기치 못하게 맞닥뜨린 사회적 위기였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연구참여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을 위해 대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19는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와 자립 준비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막는 방해물이 되었다.

오은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모(생활지도원)가 자꾸 (필기시험을) 못 보게 해

요. 진짜 빨리 따고 싶은데. 오늘도 그거 때문에 이모랑 싸웠어요. ... (중략) ... 아니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게) 여기서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서 안 보내주니까.. 정말 화나요.

연구자: 은아는 가고 싶다고 하고, 이모님은 아예 완강하신 거예요?

오은아: 네. 거기(시험장)에 사람 많다고.. 밀집되어 있다고.. 가지 말래요.

<2020년 5월 30일, 은아와의 두 번째 면담>

문소이: 아니, 그냥.. 뭔가 코로나 때문에 언니들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만큼. 그래서 뭔가 연봉 높은데도 잘 안 들어오고, 은행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연구자: 지금, 학교에서? 어떡해..

문소이: 지금 3학년 언니들. 그리고 약간 좀 공부 잘하는 언니들은 3천은 당연히 넘고 거의 4천까지, 연봉 4천까지 받는데 3천 넘는 것도 거의 진짜 힘들게? 그리고... 좀.. 약간.. 안 좋은.. 안 좋진 않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조금 낮은데 밖에 안 들어와서.. 쌤한테 말했더니 쌤이 올해는 이렇다고 또... 그냥..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취업 안 될까봐 대학을 가야하나.. ... (중략) ... 그래서 어떤 쌤들은 힘드니까 그냥 좀 전문대라도 가라고 우리들한테..

<2020년 7월 24일, 소이와의 두 번째 면담>

때 이른 자립에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

‘때 이른 자립에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은 남들보다 이른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10대의 끝자락에서 맞이하게 될 자립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과업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시설 밖 세상에 대한 탐색과 접촉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 자립이 중요한 문제임을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자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오히려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과정을 회피하면서 시설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는 것에 몰두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로의 이동이 제약되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꼭 가야만 하는 학교나 학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 외출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귀찮다는 이유로 시설 안에서만 머무르길 원했다. 자신에게 안전기지वाद과 같은 작은 방 안에서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에 안심하는 듯 보이는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시설 밖 세상과 현실에 대한 탐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했고,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퇴소 이후 생활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어렴풋하게 낙관적인 미래만을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아직은 홀로 서고 싶은 마음도, 진로를 결정하고 싶지도 않은 바람도 내비쳤다.

최하나: 근데 지금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잖아요...

연구자: 없어요?

최하나: 지금 딱 좋은데 이대로 멈췄으면.

연구자: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활이?

최하나: 네. 아니, 전 초등학생이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최하나: 네?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다 귀찮아요.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학교 가는 것도 귀찮고.

연구자: 하나는 지금 대학 진학이나 직업을 결정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가요?

최하나: 저요? 부담스럽기보다는 그냥 진짜 생각하는 게 없고, 그래서 그냥 없는 거...

<2020년 7월 25일, 하나와의 세 번째 면담>

뚜렷한 진로 목표와 자립 계획

‘뚜렷한 진로 목표와 자립 계획’은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진로와 자립에 대해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하여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흥미와 소질에 기반한 진로를 선택하기도 했고, 퇴소 이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확실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삶에 대해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다.

연구자: 이 (학)과로 어떻게 정하게 된 거예요?

유연수: 어, 저는 취업하려고 이 학교 들어간 거였어서. 근데 금융과로 가게 되면은 딱 그 금융만 보고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저희 학교는 공통으로 회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제 쪽으로 가면은 무역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금융보단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2020년 10월 23일, 연수와의 첫 번째 면담>

연구자: 나중에 혹시 자립했을 때에 계획, 혹시 좀 생각해 본 거 있어요?

김진주: 저는 나가면.. 일단 자립관을 가고 싶어서.. 왜냐면 바로 자립을 해버리면 막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 가면은 일단 돈 이런 거 보관도 해주고, 막 가르쳐주는 것도 하니깐 자립관에서 먼저 살고 싶어요..

<2020년 2월 4일, 진주와의 첫 번째 면담>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존재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존재’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지 자원으로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인생에서 닮고 싶은 사람들이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진로 준비와 성취, 그리고 퇴소 이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으로 삼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족과 시설에서 만난 원장이나 직원들, 함께 생활한 또래 아이들이나 언니들이 의미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고민거리를 터놓을만한 사람이 없거나 믿어왔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런 무시와 하대를 받는 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김진주: 막 잘 사는 언니들 보면은.. 좋긴 한데, 잘 못사는 언니들 보면은 나는 절대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웃음) 그런 생각하고.. 대부분 나가서 대학교를 다녀도 막 휴학하고.. 그래서 막 일을 제대로 하는 언니들이.. 아직 저가 친한 언니들 중에서는 딱히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저는 나가면 일단 대학교는 무조건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을..

<2020년 2월 4일, 진주와의 첫 번째 면담>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에서 의미 발견하기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에서 의미 발견하기’는 연구참여자들이 현재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훗날에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 자체를 즐기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진로 준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꿈에 대한 목표와 노력하려는 의

지가 있다는 것에 스스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연구자: 현주는 꿈을 실현하려는 중인데, 이런 과정이 어때요? 재미있고 즐거운 지, 아니면 힘들고 답답한 부분도 있는 지 궁금해요.

이현주: 다, 다 재미있는데... 재미있는데 일단 그냥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 빼고는 다 재미있고 그냥 과정은 재미있어요.

연구자: 이렇게 막 면접 준비하는 거는 재미있어요?

이현주: 네.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살아있는 거 같아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어쨌든 당분간 바쁜 거 같아요..

<2020년 10월 16일, 현주와의 세 번째 면담>

진로와 자립을 위한 준비에 몰두하기

‘진로와 자립을 위한 준비에 몰두하기’는 연구참여자들이 진로와 자립에 대한 준비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나 학교, 학원 등의 모든 가용자원과 제도 등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시설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학이나 취업 등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학교 내 인적·물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봄으로써 향후 진로와 자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했다.

연구자: 연수는 지금 취업과 관련된 정보

들은 거의 다 학교로부터 얻고 있어요?

유연수: 학교나 제가 직접 찾아보거나 그렇게 해서 해요.

연구자: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봐요?

유연수: 구글에다가 그 회사를 치고 그거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오고.. 사람인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연구자: 아~ 약간 채용정보, 공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유연수: 네. 그건 학교에서 날라와가지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 같은 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 봐요..

<2021년 4월 29일, 연수와의 세 번째 면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기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기’는 연구참여자가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에 대한 한계선을 스스로 설정해두고 그 이상의 도전이나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기대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도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무슨 일이든 먼저 도전해보는 것보다는 조금의 난이도만 있어도 쉽게 포기해버렸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이미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교육이나 지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였다. 특히, 일부 연구참여자는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매우 힘들어하기도 했다.

연구자: 네일아트 자격증은 여러 분야가 있어요? 네일아트 1, 2, 3 (단계가 있어요?)

오은아: 아, 그게 아니라 네일아트, 메이크업, 헤어 이렇게 나뉘져 있는데 저는 그냥 네일아트만.

연구자: 네일아트만~ 헤어나 메이크업은 따로 할 생각은 없나요?

오은아: (헤어나 메이크업은) 하고 싶지 않아요. (웃음)

연구자: 어려워서요? 아니면..

오은아: 네, 그리고 또 애들이 좀 재미가 없대요.

<2020년 2월 4일, 은아와의 첫 번째 면담>

김진주: (해외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저는 딱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연구자: 왜 안 가고 싶어요?

김진주: 그냥 저는 모르는 안 친한 사람들처럼 그런데 가면, 적응을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 거 같아서..

연구자: 얼마나 가 있는 거예요?

김진주: 2주 동안. 전 적응하는데 2주가 걸려서.

<2020년 6월 20일, 진주와의 네 번째 면담>

분위기에 따라 휘말리기

‘분위기에 따라 휘말림’은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선택을

답습하거나 조언을 그대로 수용하고, 진로와 관련된 준비보다는 시설에서 함께 사는 또래 아이들과 매일 노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을 말한다. 일상의 대부분을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학업에 열중하기보다는 서로 어울리며 노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진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은 시설에서 함께 사는 언니나 생활지도원의 조언에 따라 진학이나 진로를 쉽게 결정하기도 했다.

연구자: 특성화고 중에서도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김진주: 아니요, 그냥 어른들이 저가 애기 좋아하니깐 이 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연구자: 유아보육과 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요?

김진주: 네. 딱히 가고 싶은 학교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웃음)

<2020년 2월 4일, 진주와의 첫 번째 면담>

성취의 경험

‘성취의 경험’은 진로와 자립 준비를 열심히 해온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목표에 점차 가까워지면서 크고 작은 성과를 하나씩 거두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간절히 바랐던 대학이나 특성화고에 합격하기도 했고, 그토록 어려워했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의 댓가로 얻게 된 결실을 연구참여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마음

것 즐기고 있었다.

연구자: 학교는 그럼 어디 어디.. 그때 9
군데인가? 수시 넣었었는데.. 어디 어
디 됐었어요?

이현주: 저 근데.. 제가.. 어디 넣었.. 음..
(생각 중) 7군데를 넣었고, 2군데를 전
형을 2개를 넣었었어요. 근데 한 개 빼
고는 다 추가 합격으로 다 합격했었어
요. ... (중략) ... (웃음) 21학번.

<2021년 2월 6일, 현주와의 네 번째 면
담>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연구참여자들이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반
복하거나 도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어 이
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경
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진
로 준비과정에서 성과를 순조롭게 얻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하는 경험을 했고,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내야 할 과업들로 인해
소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흥미와 소질이 있던 분야에서 재능이
없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진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여전히 현실적인 한
계가 존재하고 있음에 진로와 자립에 대한 고
민과 걱정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도 경험
하였다.

유연수: 그러니까 처음에 회계를 접했을
때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깊
게 깊게 파고드니까 ‘내가 지금 왜 하
고 있지?’ 이런 생각 엄청 많이 들었
고, 하다보니까 취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딱 그렇게 돼 버
려서..

<2021년 4월 29일, 연수와의 세 번째
면담>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른 시기에 사회적으로 자립
을 요구받는 것과 더불어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진로와 자립에 대한
기회와 자원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
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진로와 자립 준비
를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막막하고 불안한
현실에 맞서 자신 나름대로의 방법과 전략을
취하면서 진로와 자립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
다. 10대가 끝나는 시점에 자립을 해야 한다
는 것을 알고 진로와 자립을 준비해나가야 한
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
우, 자신의 진로와 자립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거
나 결정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
들을 외면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방황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또한, 이들이 진로와

자립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반 청소년과 유사한 성장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에서 생활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특유한 경험은 때 이른 자립을 맞이하는 것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진로와 자립과 관련된 자원의 활용이 제한되는 것이었다. 시설 청소년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과는 달리 만18세라는 일정 연령대에 도달하면 시설이라는 공적 체계 내의 보호에서 벗어나 자립하기를 요구받는다. 그러므로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나가기 위해 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동안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곧 퇴소 시기가 다가올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불안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막막하기만한 현실에서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견디는 것을 버거워하기도 했다. 이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진로와 자립에 대한 불안을 보고했던 기존 연구들(김서현, 양은별, 정익중, 2017; 박찬웅, 김현주, 2018; 홍예영, 김유숙, 2020)과 일치하며,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회고식 보고에서도 퇴소 시기가 다가올수록 막막함과 불안감을 경험하였다는 연구결과(이태연, 최은숙, 이세정, 2019; 장정은, 전종철, 2018)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불안은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신호 불안(signal anxiety)은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면서 준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어느 정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안은 개인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신호이기도 하다(한성희,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구성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보다 일찍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여 이들의 자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7. 13.).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 시점을 18세에서 25세(만24세)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소득과 주거와 관련된 안전망과 더불어, 진로와 자립 역량을 위한 지원,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리·정서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망이 보다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보호 시점을 연장하는 것에 주목하기 보다는 이들이 보호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자립을 준비해나가기 위해 개인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생활 공간 등의 환경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재난이자 모두의 삶에 위기를 불러왔던 코로나19라는 상황은 공적인 돌봄 체계에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더욱 고립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심화될수록 시설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외출이나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등의 일상생활에 제동을 걸며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시설 안에서만 머물도록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어찌할 도리없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정제된 일상을 그저 받아들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과 시설 청소년들 간에는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질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청년이 되어도 부모와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받고(정현상, 2016; 통계청, 2021), 진로에 대한 부모의 지지(김정수, 정지연, 2012; 이주희, 문은미, 2011)를 받는 등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원 하에 여유있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질 수 있고, 자발적으로 자립의 시점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설 청소년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른 시기에 자립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진로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한정되어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와 같이 일상에 제약이 따르는 사회적 위기가 닥쳐도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진로나 자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 기존의 자원과 기회를 다른 통로나 접근 방식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시설 청소년들은 그나마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진로나 자립과 관련된 지원 체계와 다양한 기회

를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단체생활에 따른 시설의 통제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코로나19를 경험함에 따라 시설이기에 더욱 격리되고 통제되었다는 점, 줄어든 기회와 자원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없이 자립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장혜림, 김시아, 김선숙, 김희주, 정정호, 2021)와도 결을 같이 한다.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연구 참여자들처럼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약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보호되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으로부터 감염을 막고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로부터 더욱 소외되었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들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대안과 미약한 지원 체계로 인해 진로와 자립 준비에서 정보와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퇴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자립을 목전에 두고 있던 고등학생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진로와 자립과 관련하여 더 많은 지원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했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기에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과 시설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정보와 자원, 기회의 양과 질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그에 따라 시설 청소년이 경험하는 결핍도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연구참여자와 같은 대안 양육체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의 방향성이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의 삶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보호체계에
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의 건강한 발달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지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힌 듯이 연구참여자는 이들이 가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과는 다른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막뜨리는
막막함과 불안함, 두려움 등을 극복해나가거
나 외면하며 흔들리는 경험을 했던 것은 대다
수의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발달과업을 이뤄
나가며 경험하는 것과 사뭇 다르지 않았다.
즉, 연구참여자들이 진로와 자립을 준비해나
가면서 자신만의 진로 목표와 계획을 실현하
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크고 작은 성취를 경험
했던 과정이나 막막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두
려워하며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애써 회피하
면서 방황하는 연구참여자들의 모습은 일반
청소년들이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심리적인 반응이나 대처 방안과
도 유사하다(소수연, 주지선, 조은희, 손영민,
백정원, 2021).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이른 시기
에 자립을 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와 마감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과 유사한 심리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 내외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체계
가 세심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
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자립을 해야
만 하는 현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으며, 준
비되지 않은 자립은 세상 밖에서 불안정한 일
자리와 주거, 생활고 등으로 인해 고단한 삶
의 여정을 밟게 된다(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 정혜옥, 손병덕, 2018).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이 자신이 자립을 준비해야 하
는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은 시설 청소년이 곧 당면하게 될 자립을 준
비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매우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당면하게 되는 자립에 대한 의미와 중
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자연스럽
게 이어나갈 수 있기 위해 시설 청소년의 자
립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립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심도있게
고안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례가 가진 특유성과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제약이 따르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이 연구
에서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주로 연구참
여자와 연구자 간 개별면담을 통해 수집되어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따라 이들이 시설 내외
에서 제공받고 있는 진로와 자립 준비에 대한
정보와 경험했던 교육,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구참여자들이
시설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이
나 진학 등이 포함된 진로 및 자립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 이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면담 이외에 관찰이나 관련 문서, 주변
또래, 지역사회 연계 자원 등의 다양한 출처
로부터 자료를 활용하였더라면 더 풍부한 연
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자료수
집을 다각화한다면 더욱 신뢰성있는 연구결과
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진행된 개별면담은 코로

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정도와 모임 지침에 따라 연구참여자별로 면담 주기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연구참여자들의 학교급이나 학년이 변화하게 되어 시설 퇴소나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취업 등의 사례도 발견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진로 및 자립 준비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성과를 밝혀 내었지만, 면담 시점의 차이로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진로 성취 과정 경험들을 상세하게 반영할 수는 없었다. 특히, 10대 후반에 속하는 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가변성이 매우 큰 시기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소수의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의 삶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면서 진로와 자립 준비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여자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자 시설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준비 경험을 담아내지 못하였다. 물론 이 연구의 목적은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아니라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 및 자립 준비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입대’라는 특정한 사건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여자 청소년들의 진로 및 자립 준비 경험과는 다른 방향성이나 관점 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이나 기회, 정보 등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이들이 진로 탐색하고 선택하는 방향과 시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설 청소년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성별을 고르게 구성하여 남녀 청소년 간 진로 및 자립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다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시설 청소년들이 진로와 자립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느 또래 청소년들처럼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하거나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시설 청소년들이 이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른 시기에 자립을 해야만 했지만, 진로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청소년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일반 청소년들 경험하는 것과 결이 같은 성장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국가 및 국제적 재난인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과 더불어 진로와 자립 준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10대 후반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시설 청소년은 곧 맞이하게 될 퇴소에 대비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순조롭게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활용가능한 자원과 기회를 충분하게 누려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는 시설 청소년에게 더 많은 자원이 제공되고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체계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이유로 통제와 관리할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어떠한 지원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자립 준비 과정을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진로와 자립준비 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나 정책, 접근 방식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시설 청소년이 현재 시설에서 생활함에 따라 실제로 어떠한 진로와 자립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에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아동복지시설 현장과 자립지원 관련 기관 등에서 진로와 자립 준비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아, 이종은 (2018). 시설퇴소청소년의 초중고 학교생활 및 진로선택 경험. *학교사회복지*, 43, 49-79.
<https://doi.org/10.20993/jSSW.43.3>
- 관계부처 합동. (2021. 7. 1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_T_SEQ=366425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 김서현, 양은별, 정익중 (2017). 편견을 희망으로 바꾸는 달리기 - 학업성취 우수 시설보호아동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69(4), 177-202.
<https://doi.org/10.20970/kasw.2017.69.4.007>
- 김예성, 이경상 (2015).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2, 7-32.
<https://doi.org/10.17854/ffyc.2015.04.42.7>
- 김정수, 정지연 (201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미래청소년학회지*, 9(4) 31-50.
- 김형태, 이수천 (2019). 가정 외 보호아동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의 비교. *보건과 복지*, 21(1), 51-73.
<https://doi.org/10.23948/kshw.2019.03.21.1.51>
- 문은숙 (2010).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애, 최옥채 (2018).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외상후성장 경험. *사회과학연구*, 34(2), 127-153.
<https://doi.org/10.18859/ssrr.2018.05.34.2.127>
- 박은미, 장신재 (2009). 시설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4), 111-119.
- 박찬웅, 김현주 (2018). 시설청소년의 불안과

-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문화포럼, 54, 95-123.
<https://doi.org/10.17854/ffyc.2018.04.54.95>
- 보건복지부. (2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4&CONT_SEQ=352679에서 2022년 8월 2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2021 아동복지시설 현황 (2020. 12. 31.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7902에서 2022년 8월 2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2). 2021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71655에서 2022년 8월 2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2. 6. 14.). 6월 22일(수)부터 “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8&CONT_SEQ=371763에서 2022년 6월 15일 인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소수연, 주지선, 조은희, 손영민, 백정원 (2021). 청소년 불안·우울 경험과 회복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9(1), 229-254.
<https://doi.org/10.35151/kyci.2021.29.1.011>
- 송연주 (2018). 시설보호 청소년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별, 김지혜, 정익중, 이정희 (2017).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시설퇴소청소년의 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9(4), 133-158.
<https://doi.org/10.19034/KAYW.2017.19.4.06>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제2판). 서울: 박영스토리.
- 유영립, 양영미, 박미선 (2015).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이해: 생애사적 관점으로. 아동과 권리, 19(3), 509-550.
- 이경상 (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실태. 청소년학연구, 18(10), 341-362.
- 이상정, 김지민, 안은미, 김무현 (2021). 보호종료(예정) 아동 심리정서 실태조사.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이주희, 문은미 (2011).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211-226.
- 이태연, 최은숙, 이세정 (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청소년들의 생활경험과 자립 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청소년학연구, 26(4), 293-322.
<https://doi.org/10.21509/KJYS.2019.04.26.4.293>

- 이화명, 김영미 (2015). 아동양육시설 청소년기 입소자의 시설생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 419-447.
- 장정은, 전종설 (2018).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0(2), 95-125.
<https://doi.org/10.19034/KAYW.2018.20.2.05>
- 장혜림, 김시아, 김선숙, 김희주, 정정호 (2021). 코로나19 시기,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삶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8(9), 171-199.
<https://doi.org/10.21509/KJYS.2021.09.28.9.171>
-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 가정외 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7, 9-42.
- 전가일 (2021). 질적연구, 계획에서 글쓰기까지 질적연구자를 위한 58문 58답. 서울: 학이시습.
- 정현상 (2016).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선택요인. *노동리뷰*, 140, 69-82.
- 정혜옥, 손병덕 (2018). 아동양육시설 중도퇴소 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청소년학연구*, 25(5), 291-315.
<https://doi.org/10.21509/KJYS.2018.04.25.5.291>
- 조민좌, 전효정 (2012). 시설보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행동 적응문제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0(2), 57-64.
- 최경옥, 김수정 (2018). 그룹홈 퇴소 청소년의 자립 준비과정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44(3), 211-245.
<https://doi.org/10.15820/khjs.2018.44.3.010>
- 최지욱 (2021). 코로나19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신경정신의학*, 60(1), 2-10.
<https://doi.org/10.4306/jknpa.2021.60.1.2>
- 통계청. (20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03144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 한성희 (2013).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서울: 갤럭시.
- 홍예영, 김유숙 (2020).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7(2), 275-304.
<https://doi.org/10.21509/KJYS.2020.02.27.02.275>
- 황수연 (2018). 아동양육시설 퇴소 성인들의 세상을 품고 살아가기: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연구 접근. *사회복지연구*, 49(1), 297-334.
<https://doi.org/10.16999/kasws.2018.49.1.297>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CO/5-6). Retrieved June 3, 2021, from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KOR&Lang=EN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공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2010)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 New York: W. W. Norton Company.
- Glaser, B., & Strauss, A. (2011). 근거이론의 발견: 질적 연구 전략. 이병식, 박상욱, 김사훈(공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1967)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1 차원고접수 : 2022. 07. 24.
수정원고접수 : 2022. 08. 21.
최종게재결정 : 2022. 09. 27.

Children Who Become Adults Too Quickly: The Career and Self-reliance Preparation Process of Adolescents in Child Rearing Facilities during COVID-19

Yoo, Seolheu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Han, Sae-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areer and self-reliance preparation process of adolescents living in child rearing facilities separated from the original family. Eleven female teenagers under the age of 14-18 who are currently living in child rearing facilitie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from February 2020 to May 2021. To examine the career and self-reliance preparation process experienced by facility youth, 119 concepts were derived through the micro-analysis by Strauss and Corbin (1998). Concepts were combined and classified into 13 categories and 41 subcategor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situation of the COVID-19 crisis had a more negative effect on the overall life and career and self-reliance preparation of facility youth. However, adolescents in some facilities were complacent about facility life and did not recognize the necessity for career and self-reliance preparation. Continuous monitoring and follow-up management are required. Adolescents in facilities faced independence at an early age and were tasked with career decisions earlier than others in the same age range and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However, there were some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ersonal development and growth during the preparation process of career and self-reliance like their peers.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career and self-reliance preparation education and programs for youth in the out-of-home protection system.

Keywords: child rearing facilities, protection terminated children,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career, self-reliance